



휴게실서 자고 샤워장서 씻고 쓰레기통 뒤지고 병원들 노숙자 침입에 '골머리'

절도사건 빈발... 보안 허술해 환자·보호자 불안

강추위로 인해 병원에서 겨울나기를 하는 노숙자들이 늘면서 병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밤마다 노숙자들이 병원에 숨어들면서 병원 위생 환경과 보안을 해치는 물론 심야 시간대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들이 놀라는 경우가 잦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9일 새벽 1시에 광주시 A병원. 이 병원에서 딸을 간호하고 있는 김모(36)씨는 화장실로 가기 위해 병실을 나섰다가 놀라 넘어질 뻔 했다. 입원병동 휴게실 의자에 허름한 옷차림의 남자 2명이 자고 있었던 것. 노숙자로 보이는 남성들을 피해 병실로 돌아온 김씨는 이후 늦은 시각에 병원을 돌아다니지 않는다.

광주시 B병원에서도 서너 명의 노숙자들이 밤반 되면 병원 휴게실에서 자고, 심지어 공동 샤워실에서 목욕까지 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 C병원의 경우는 노숙자들이 화장실에 널어진 환자와 보호자들의 양말이나 옷 등 세탁물을 수시로 가져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병원은 건물 구조상 응급실이나 입원병동의 출입문이 24시간 개방돼 있는데다 난방이 잘 돼있어 노숙자들의 좋은 취침 장소가 되고 있다. 노숙자들 등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이 심야시간대 노숙자들의 출입이 잦으면서 병원에서 금품을 훔치는 절도 사건까지 빈발하고 있다. 광주 모 대학병원에서 환자 행세를 하며 7차례에 걸쳐 환자들의 지갑과 금품을 훔치다 검거된 노숙자 김모(28)씨는 경찰에서 "20여일 동안 병원에 머물며 빈 침대나 휴게실 등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했다.

또한 밤을 보내기 위해 병원에 들어왔다가 후심이 생겨 환자나 의료진들의 금품을 훔친 노숙자가 심심찮게 경찰에 붙잡히고 있다. 입원환자 박모(54)씨는 "병실에 날마다 물품을 파는 잡상인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밤이면 곳곳에 노숙자들이 잠자고 있는 것이 보인다"면서 "병원 보안이 너무 허술해 불안하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교사 성과급 최대 117만원 차이

초중고교 개인·학교 실적 따라

올해 초·중·고 교사들의 성과급 차이가 개인과 소속 학교의 실적에 따라 최대 117만원까지 벌어지게 된다. 성과 상여금을 지침과 달리 균등 분배하거나 답합, 몰아주기 등 부당 수령하면 해당교원은 아예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개인별 성과급은 4월까지, 학교별 성과급은 6월까지 지급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성과급 총 예산(1조4000억원)의 90%는 개인별로, 나머지 10%는 학교별로 지급된다. 학교 성과급은 기초생활수급 자녀

수, 다문화 가정 학생 수 등 학교 여건을 고려해 전년 대비 학업성취 향상도를 따진 뒤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개인별 성과급 지침은 학교별로 50%, 60%, 70%의 차등 지급률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는 등 지난해와 같다.

개인·학교 성과급을 모두 최고 등급(S)을 받은 교사와 둘 다 최저 등급(B)을 받은 교사의 성과급은 최대 117만2170원 차이(개인별 성과급 차등 지급률을 50%로 했을 때)가 나뉜다. 이는 지난해 최고~최저 등급 간 차등 지급액(98만1470원)보다 19만700원 늘어난 것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위러브유' 600명 헌혈

(사)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회장 장길자)는 10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강당에서 회원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3회 생명이, 새롭기와 함께하는 광주지역 헌혈하나운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의 헌혈증은 14일 화순 전남대병원 암센터에 기증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경찰서·구청서도 가짜 휘발유 신고

일선 경찰서와 구청에서도 가짜 휘발유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24분 해질 18시 10분 달뜨기 11시 12분 달짐 00시 52분

휘~익 겨울바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 건강관리에 유의 해야 하겠다.

지역	구름조도	기온
광주	구름조도	-5/3℃
목포	구름점차많아짐	-3/2℃
여수	맑음	-2/6℃
나주	구름조도	-5/4℃
완도	구름조도	-2/4℃
구례	구름조도	-5/5℃
해남	구름조도	-4/4℃
장흥	구름조도	-4/4℃
순천	구름조도	-3/6℃
영광	구름점차많아짐	-6/2℃
진도	구름조도	-3/4℃
전주	맑음	-8/2℃
군산	구름조도	-7/1℃
남원	맑음	-9/2℃
옥산도	구름점차많아짐	-1/1℃

바다	종향	파고	체감지수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주의	보통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바다	종향	파고	일출	일몰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목포 07:04	12:14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여수 01:38	07:24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13:15	19:4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2(토)	13(일)	14(월)	15(화)	16(수)	17(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6/1	-7/2	-5/1	-6/4	-1/8	2/8

야생동물 이동 단절지역

생태통로 설치 늘린다

환경부는 10일 주요 생태축에 있는 야생동물의 이동 단절지역에 비해 생태통로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구간 차등 지급액(98만1470원)보다 19만700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4~12월 현지 조사 결과 전

국에 설치된 생태통로는 모두 317곳으로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의 훼손·단절지역(987곳)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또 새로 설치되는 육교형 생태통로는 중앙 폭이 최소 7m 이상, 터널형은 개방도(생태통로의 입·출구 면적/통로 길이)가 0.7 이상 되도록 해야 생물들이 손쉽게 넘나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